

눈길 끄는 특·특·행·정

# 실내 모든 행사 종이현수막 쓴다

해남군, 환경오염 유발 천 현수막 줄이기로  
처리비용도 저렴...기관·광고업체 협조 요청

해남군은 앞으로 실내 행사 때 사용하는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현수막을 사용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이 현수막은 제작하는데 비용이 1㎡에 1만원으로 종이현수막(㎡당 7000원)보다 비싸다. 또 폐기되는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당 40만원의 위탁처리비용이 소요된다.  
해남군은 친환경 재질의 종이현수막을 사용하면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폐기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이 해남버스터미널에 코로나19 대응 캠페인 현수막을 종이현수막으로 제작, 설치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실내행사에서 종이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광고물 제작 업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버스공제조합 가입 보험료 줄여

신안군, 보험료 할증 받는 공영버스 76대  
전용 유류카드도 발급...연 3억 절감 효과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제제를 도입한 신안군이 버스공제조합 가입과 유류카드 사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버스공제제를 전면 시행해 현재 76대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일반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신규 가입을 기피하고 보험료를 할증 적용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험 계약 갱신 방법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민간 버스운수업체를 조합원으로 한 버스운송조합과 지난해부터 수 차례 업무 협의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버스

운송조합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고, 지난 7월1일부터 신안군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공제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갱신업무를 연 1회로 간소화하고, 매년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스 전용 유류카드를 제작해 오는 13일부터 사용함으로써 리터당 38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한 주유비 지출 투명성 확보는 물론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공제제 준비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해안가 뒤덮은 해양쓰레기 50여t 수거

영산강 쓰레기 수만t 밀려와  
목포시·해수청, 70여명 동원  
수초·목재 등 제거 작업

목포 해양당국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목포항으로 밀려든 해양쓰레기 50여t을 수거했다.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 수위조절을 위한 영산강 하굿둑 배수갑문을 개방하면서 각종 수초·목재 등 해양쓰레기가 목포 평화광장 해안가를 뒤덮었다.  
폭 500m의 쓰레기띠가 무려 2km에 걸쳐 생성되면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평화광장을 에워쌌다. 이 같은 쓰레기섬은 평화광장 앞 해상과 남항, 목포내항 등 세 군데에 걸쳐 넓게 펼쳐졌다.  
쓰레기 양만 수만t에 달할 것으로 해양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더미는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티 여객선이 다니는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에도 흘러들어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목포해수청과 목포시는 지난 9일부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수거 활동을 벌였다.  
이번 수거 작업에는 해양쓰레기 청소선박 3척과 군부대 인력, 목포시 청소인력 70여명이 동원돼 총 50여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목포 해양당국이 지난 9일 청소선박 3척과 군부대·목포시 청소인력 70여명을 동원해 목포항에 밀려든 해양쓰레기 총 50여t을 수거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 해양당국은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태풍 상황이 해제되는 즉시 유관기관과 함께 조속히 정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주요 여객선이 오가는 항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산강 하굿둑에서 계속 쓰레기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수거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희석 기자 kyl@kwangju.co.kr

# 해남군, 저수지 아랫마을 2곳 재해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남군은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주민들을 안내하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7억원(국비 50%)을 투입해 자연재해 위

험개선지대로 지정된 해남읍 북평지구와 화원면 인지저수지 등 2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강우량계, 변위계, 수위계, 옥외 무선방송 시스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등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주민대피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마을 상류부에 저수지가 있는 재해위험지구로 장마·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꼽혀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생일날, 완도 생일도에 오면 여객선 무료”

완도군·완도농협, 섬에 도착하면 전광판 축하 문구 이벤트도

“생일맞은 사람이 완도 생일도에 들어오면 여객선은 공짜입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농협은 이달부터 생일을 맞아 생일도에 들어오는 주인공을 위해 완농페리호(약산당목항-생일 서성항) 무료 승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객선 무료 승선 이벤트는 ‘가고 싶은 섬, 생일도’ 관광 활성화와 섬 홍보를 위해 완도군과 완도농협이 협약해 시행 중이다.  
생일도에 가기 위해



완도 생일도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 생일케이크 조형물

서는 약산 당목항에서 여객선(완농페리호)을 이용해야하며 승선 요금은 왕복 6600원이다.  
그러나 방문자가 생일이면 무료다. 생일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발급 시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 도선료는 제외한다.  
완도군은 생일도 방문객들을 위한 여객선 부두 전광판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생일을 자축하고 싶거나 생일도 방문을 추억으로 남기길 원한다면 여객선이 부두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축하 또는 환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 여객선 부두에 설치된 국내 최대의 케이크 조형물에서 감미롭게 흘러나오는 축하 노래를 들으며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사건 신청은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생일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방문 하루 전 신청해야 하고,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  
생일도는 지난 2016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최대 생일 케이크 조형물과 리조트형 관광농원, 생일절김과 명 때리기 좋은 곳 등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 수는 3만3613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2만8000여명이 다녀갔다.  
이 추세라면 8월 내에 지난해 방문객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농협은 여름 휴가철 급증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선을 추가 투입했다. 또 숙박객 편의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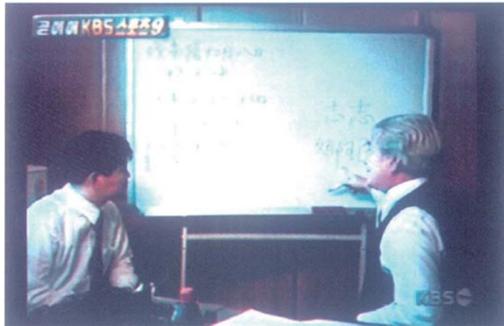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